

제 141 호

연중 제 19주일

1975. 8. 10.

# 숲 정 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법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3498)

□강론□

## 항상 기도하셨던 분

법선배신부



누가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여 믿기만 한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 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무릇 참된 그리스도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언행을 따라 생활하여 "제2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짜증스럽도록 어렵고도 바쁜 생활속에서도 그렇게 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들은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고 여러 겹에서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조용히 기도 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혼자 거기 계신"(마태 14, 23)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여러번 나온다. 또 여럿이 모여 공동으로 기도하기를 명령하시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는 혼자서 조용히, 어떤 때에는 밤을 새우시기도 하면서 꼭 기도하셨다.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광야에서 사십일이나(마르 1, 12), 전도여행 전에(마르 1, 35) 모두가 그분을 찾고 있을 적에도(마르 1, 37), 전도여행중에도 때때로 틈을 내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마태 14, 23; 루가 5, 16).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중에서 열 둘을 사도로 뽑기 전날밤에도 밤새워 기도하셨고(루가 6, 12),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당신의 정체를 공개하려는 아주 장엄하고도 긴장되었을 순간에도(루가 9, 18) 그분은 기도하고 계셨다.

요한 세자가 처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으시고서 심사가 괴롭고 울적하였을 적에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마태 14, 13) 그분은, 아마 그때에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낮에는 군중을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올리브산에 올라가서서 밤을 지내셨을 때에도(루가 21, 37) 그분은 기도하셨으리라. 그분의 지상 생활을 종결지으려 하실 때에도 그분은 기도하시다가 잠하셨다.

이렇게 몸소 기도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교인이며 그리스도의 충실한 추종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2차 비티칸 공의회 이후에 신앙의 생활회라는 구실로 기도생활, 특히 개인 기도 생활이 소홀하게 되었다는 것은 솔직히 내자신을 보아서도 부인하기 힘들다. 우리 각자의 생활도 이렇지 않은지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반성한 것을 고쳐서 명실상부한 그리스도교인이 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바로 지금부터 시작해도, 우리 각자가 "제2의 그리스도"가 되기에는 조금도 늦은 것이 아니다. 이 좋은 길을 우리 모두 다 함께 가지 않으려는가?  
(매야 천주교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입당송 하느님, 당신의 언약을 돌아보시고 당신의 가난한 이들 생명을 내내 잊지 마소서. 하느님, 일어나 시어, 흠오심을 밝히시고 당신을 찾는 이들의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옵소서.

###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열왕기 전서 19. 9. 11-13)

산위 주님 앞에 서 있거라.

□찬가송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소서.

주 하느님 말씀을 내 듣고 싶사오니/정녕 평화를 말씀하시나이다./당신의 백성과 성도들에게/당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정녕 가까우니/당신의 영광이 우리 주에 계시게 되리라.◎

□제2독서 (로마 9:1-5 성서 p 354)

나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한이 없겠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4:22-33 성서 p 35)

물 위로 당신에게 가게 하소서.

### □신자들의 기도

1. 하느님, 어려운 현세를 거처서 당신에게로 나아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이 교회가 시대의 징표를 잘 읽어 친목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소서. ◎주여 나의 기도들...

2. 모든이의 어진 아버지이신 하느님, 특히 이북의 공산주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회심하여 당신께로 가는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해주소서. ◎

3. 항상 기도하시며 이 지상생활을 하셨던 예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도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은총주소서. ◎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내가 주려는 빵은 내 살이니, 이로써 세상이 생명을 얻으리라.

## 숲 정 이 산책



□더위를 이겨낸 젊음□



### 땀 방 울

최 돈 규 (발렌티노)

년중행사로 일해오는 대학생들의 농어촌 봉사는 내면적인 의식의 흐름으로 창의성과 조직력, 文化관을 가지고 농촌을 찾아 봉사를 전개한다.

물질, 정신, 행동文化의 집념으로 전달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작용이 곧 봉사인 것이다. 농어촌은 아직도 도시에의 열망과 농촌의 열등의식으로 자기감등이 심하므로 건전, 합리, 지성으로, 폐쇄적인 마음을 열어주는 데 게울리해서는 안된다. 교수님 이하 22명의 봉사대원들은 천주를 출발, 비내리는 호남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5박6일을 상상하며 매죽리를 향해 달리는 우리의 마음은 한결 사명감 같은 것이 어리고 있었다. 푸른산과 맑은 물은 상패함을 만끽하게 했고 피로했던 마음도 후련하게 씻어주기도 했다.

첫날 트럼펫 소리로 5시30분을 알렸고 조기체조, 샴, 팽이, 비를 준비 4-H부원과 함께 조기 청소에 임했다 규칙적인 생활은 평소 나의 생활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며 특히 상수도 공사에는 더욱 많은 관심을 두고 모두가 단련이 될것 같다. 이 매죽리사내 마을은 총 14가옥에 80여명의 주인이 생활하는 마을인데 깨끗하고 말끔하게 쓰고 있는 이 하천은 이곳의 중추가 되고 있으며 근대화될 이룰 수 있는 다분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고사리 같은 손과 하얀 얼굴들이 빨간 산딸기마냥 짐계 그을리면서 환희의 피곤함도 없이 보조계를 지으며 직업에 임함은 생산적인 봉사가 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아동교리를 농교 공소 옆 폭포 암자에서 "천주님의 말씀" "저축과 내핍생활"을 역점으로 그리스도를 알리고 따르는데 힘을 모았으며, 하계 학교에서는 더욱 더 어린이들이 그리워 하는 人間관을 증점으로 시도했었다. 우리가 이들에게 주고 싶고 원하는 바를 다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인 것 같았다.

밤 8시부터 보건위생 강론 즉, 충지에서부터 무좀 설사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어야 할 정도의 예비지식과 발병시의 유의사항을 관심있게 알려주었으며 무질서하게 약을 바라는 이분들에게의 의약물치로도 해했다.

협동심이 많은 부녀회의 성원을 받아 가까운 곳의 김메기 작업은 차츰 머리작인 어린이에 처럼 시원스런 모습으로 변화가고 있었고 마무리작업이 끝난 30일 오후 9시부터는 우리들만의 Camp Fire을 갖었으며 이자리에서는 5일간의 종합평가 토의도 갖었는데 이교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다.

<대학생 연합회장>



### 수련회를 다녀와서

이 희 준 (마지아)

비가 올러는듯 찌르린 흐린 날씨에 수련회를 위하여 떠나는 교사들의 마음은 자못 설레이면서 그러나 비가 오면? 하는 마음의 엄킵속에 뻘스에 몸을 실었다.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신태인 농교리 공소에서(3박4일)교리교사 수련회는 하계 특별교리를 위한 수련 및 교사들간의 유대관계에 역점을 두고 실시 하였다. 첫날 만남의 날이라고 명명한 가운데 앞으로 며칠간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여러 본당에서 모인 교사들끼리의 어떤 서먹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자못 신경이 곤두세워졌다. 어떤 종류의 연수회, 수련회, 피정이든 그 단체의 분위기는 효과나? 아니면 역효과나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뜻밖에도 첫날 몇시간 지나지않아서 모든 교사들은 한 가족같은 분위기에 휩싸여 버렸다. 일체의 식사까지 조를 나누어 교사들 손수 하여야 하는 실정의 어려움 상태에서도 그러나 만남의 날, 정 나눔의 날, 사림의 날 헤어짐의 날까지 모두가 추구하는 공동체적 분위기를 만들어낸 수련회보다도 부드럽고 자연스런 분위기 안에서 짜여진 강의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나아가갈 때 이는 우리교사들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나 주교님, 부주교님, 그리고 김영일 신부님, 배 요셉 신부님의 방문은 교사들의 마음을 뿌듯히 해 주었다.

마지막 헤어지기 전날밤의 "정나눔의 밤"은 공동체의 식이 또한 교리교사의 사명감에 대해 가장 강렬하고 또 거울게 느껴졌던 최고봉의 일치 절정의 시간이었다. 또 닥붙이 타오르는 둘째에 둥글게 원을 그리고 서서 "수련회를 마치고 나가서는 말 보다는 행동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아동들을 하느님에게로 인도하겠다."는 엄숙한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이 모닥불에 던져져서 어둠안에서 환한 빛을 밝혀 주었을 때 우리들의 가슴에는 뭉클 맺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가랑비를 맞으며 드리리는 기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 기도는 우리들의 눈시울을 적시어 주었다. 헤어짐-아쉬움의 악수로 인사를 나누면서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어갔다.

여러가지의 미미한 불충분한 가운데 그러나 그 어느때 보다는 성황리 속에서의 알찬 지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으며 여러 지도자이신 지도신부님 및 이재후 신부님, 김동준 신부님, 한정상, 안철문 학사님들의 알뜰한 배려는 그 노고를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될지. 마지막 떠나는 우리에게 울려오는 공소회장님의 전송을 받으며 날씨마저도 적당한 빛을 내려주신 하느님 은총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오는 우리네의 마음과 눈은 맑고 푸르지만 했다. (전주 교구 교리교사 연합회 총무)

◎교형 여러분의 집◎

### 현대 사진관

김 낙 준(요한)

오거리 한전 옆

전화 ⑥ 6289

\*경운기·분무기·탈곡기  
\*트랙터·양수기·농기구 일절

###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전화 5116, 6114, 3547)

K.S사자표 페인트 대리점

반도카슈 대리점

표구재료 각종한지

시크 출입벽지 파이텍스

### 대동 지물 페인트 상사

전주시 풍남동 1가7번지

전화 ⑤ 5986

인 정 원(도민교)

□양지쪽□



# 호성 깃든 청원을 바치자

황 민 성 주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창조와 시작이었지만 성모를 위해서는 벌써 하느님과 더할 수 없는 깊은 일치로 이루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생애, 수난, 부활은 우리를 위해서는 구원의 시작과 보증이지만 성모를 위해서는 신실생활의 극치를 이루는 단면들이기도 하다. 이렇게 성모께서는 유일하시고 독특한 입장에서 구속사업의 협조자가 되시므로 천사와 인간위에 뛰어나시게 되었다. 성모는 예수님 생애의 신비를 속삭여 주시던 성령과 밀접히 결합되어 계셨고 그리스도의 모든 사정을 마음에 담아 언제나 꼼꼼히 생각하고 계셨다. (루가2:19) 그렇다면 성모께서는 예수님께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또 더 깊게 알고 계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아는 것도 있다. 그와 가장 친밀한 생활을 하였고 그를 비한 데 없이 극진히 사랑하셨으며 예외적인 마음의 순정으로 그를 대하신 성모님의 태도에서 우리는 예수께 대해 가장 훌륭하고 적절한 지식을 얻을 수도 있다.

사도들도 성모님과과의 대화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힘있는 광명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시초부터 신자들은 성모께 전적으로 신뢰했고 어머니로 모셨다. 성모님은 예수의 어머니이시고 예수님은 “많은 형제중에서 맏이” (로마8:29)시다. 신자들은 성모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던 극진한 사랑으로 신자들까지를 감싸고 있음을 재빨리 깨달았다. 성모께서는 십자가 밑에서 당신 아드님의 부탁으로 요한 사도를 통해 전 인류의 어머니, 특히 죄인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요한19:26)

이때부터 성모께서는 아무리 버림받은 죄인이라도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 품에 안으시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정화하시며 인간의 모든 비참과 고통에 크게 동정하시고 온갖 은혜를 당신 아드님께 빌고 계시다.

은총을 가득히 입으심으로 원죄없이 세상에 오셔서 죄없이 일생을 살아가신 성모께서는 하느님 바로 옆에 들어올림을 받으셨다. 때문에 신자는 친상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자신을 가질 수 있으며 어머니께 모든 고뇌와 고통을 맡겨 드릴 수 있다. 이렇듯이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신앙과 신비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어머니의 자태를 우러러 보면서 우리는 무궁무진한 희망과 환희를 맛보는 것이다. 그리고 성모님께 우리가 바치는 정성숙에는 언제나 호성과 명상과 기쁨과 찬미와 성원이 함께 하는 것이다. (대전 교구장)

## 요심이 (107) 김병오



### ◆ 직원 채용 공고 ◆

1. 자격:
  - 방역 필한 25세 이상
2. 구비서류:
  - △차필 이력서 2통
  - △주민등록초본 2통
  - △명함판 사진 3매
3. 제출처 및 마감 일자:
  - 8월 30일까지
  - 전주시 서학동 110-1
  - 친주교회내
  - 친주성가 신용협동조합
  - 일자: 1975년 8월 31일
  - 서류전형후 개별 통지함

### 현대 광고사

\*아크릴·각종간판·아취·셀크인쇄

### 현대 DP사

\*칼라흑백사진·카메라수리

송홍섭(토마스)

전화 ⑥ 9431

삼남극장과 전북신문사 비거리 중간

\* 교월 여러분의 집 \*

### 스타 사진관

장남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⑥ 6094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 성심당 한약방

### 대지사진관(2층)

이상범(펠로리아노)

유교빌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⑥ 6544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 유교옆 중앙시장동

(전화 ⑥4577)

※집단장 형부. 문의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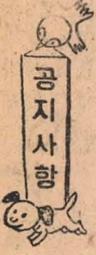
### 금강 페인트사

<고급도로, 방수액, 흑판등>

전화 ⑥0876 김 데레사

소방서 북편. 결핵협회 옆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 75년 8월 15일 오후 2시부터 17일 오후 2시까지.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참가비 : 2,500원 많은 신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2. 중·고등 연합회 뺏지 대금 미납 본당은 속히 완납 바람 (8월 15일 까지) 연합회 활동상황이 활발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오자 본당 학생들의 협력 바랍니다. (뺏지 주문 본당은 대금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제 2차 회장단 회합때 주문 바람)
3. 학생회 체육대회 : 여산 천주교 금마공소 일시 : 8월 24일
4. 제 3 지구 아동 교리 경시 대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1975. 8월 17일 오후 2시 장소 : 각 본당 (범위) 가톨릭 교리서, 첫 영성체 기준, 기도문. 루가 복음중에서 어린 아이의 비유 (참가 학년) 3.4학년 5.6학년
5. 제 1 지구 본당 신부, 회장, 재무부장 지구 회의 개최 : 신태인 천주교회, 8월 11일 11시.
6. 성모 뫼소 승천 미사 : 8월 15일 10시 중앙성당에서, 주교님 집전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②3874 보좌 신부 김동준  
 사도 회장 김영진

1. 꾸리아 윌레회 : 오늘 오후 2시
2. 성모회 윌레회 : 다음주 일
3. 모든 예비자 교리는 방학하고 다음 9월 7일 시작
4. 축영예식 : 8월 12일 오전 9시
5. 어린이 첫 영성체 : 8월 15일.
6. 광복절, 성모 승천 미사 (주교님 집전)
7. 성모 뫼소 승천전 매일 미사 전후 고백 성사 있음.

(복자)

전화 ③ 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모 공소 승천 미사 : 오전 5시 30분, 10시, 저녁 8시
2. 성우회 윌레회 : 공식 미사후 (전원 참석 요망)
3.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성미 : 1말 9되 누계 : 377.8되

(서학동)

전화 ③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상관 사도회 : 오늘 미사후
2. 중, 고생 교리 : 토요일 오후 6시
3. 오늘 오후 4시 첫 고해와 첫 영성체 및 미사 있음.
4. 성모 승천대 축일을 거룩히 지냅니다. 미사는 주일과 같음.

(노송동)

전화 ②732 주임 신부 합승천  
 사도 회장 조해형

1. 신용조합 윌레회 : 오늘 10시 미사후
2. 부녀회 : 다음주
3. 8월 15일 미사 : <아침> 6시, 10시, <오후> 7. 30분
4. 첫 영성체 : 8월 15일, 10시 미사시
5.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전동> 황인주 : 3만원 <노송> 박옥희 : 5천원 <노송> 박순자 : 3천원 기타 : 3천원 무명 : 만원  
 ● 주계 : 51,000원 누계 : 3,896,527원  
 ● 신축성미 : 226.1되

(전동)

전화 ②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한이  
 사도 회장 이현재

1. 자모회 윌레회 : 공식 미사후
2. 성 가정회 : 오후 1시 성당에서
3. 성화회 : 11시 30분 (야외)
4. 주일학교 특별 교리 : 매일 오전 8시 30분
5. 애령회 특별 헌금 있음.
6. 신용조합 윌레회 : 14일 밤. 성당 대지 마련을 위한 신입자. 유석중, 고명훈, 정인찬 : 각 20,000원. 김순녀, 한상갑, 범희갑, 방준철 : 각 10,000, 이순화, 송길정, 강병수, 정영자, 최성용, 이선경, 고태석, 권형자 : 각 5,000원. 허준주 : 3,000원  
 계 : 118,000원 누계 : 1,359,880원

(덕진)

전화 ②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1. 1976년도 사도회 확장단 선거 관리 위원회. <선거 위원장> 송정원 <부위원장> 김은식 선거위원 : 송정원, 김은식, 조준석, 최낙범, 문계원 임병순, 최덕래, 김기순 후보자 : 8월 31일에 공고
2. 각 구역, 반 미사 실시 : 9월부터 매주 월~금까지.
3. 청년 연수회 : 8. 11~13, 순창 강천사, 회비 : 1,500원 쌀 2되
4. 그리스도 망상회 : 공소에서 3명, 구역, 반 2명 이상 참석 요.
5. 신용조합 윌레회 : 공식미사 후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김부수 신부 임태인	창제안류	2,730원	제 3 지구	주현동 장학인동 황동	요셉회, 임시총회 부인회	37,600원	
		사도회 윌레회 보고 안내 중·고등학교 목상회	17,180원			축신부님 영명 첫 영성체반 교리 실시	37,030원	
		성모 승천 성가 연습 포오크 댄스 강습	3,685원					
			12,710원	제 4 지구	중노송덕복서학동	꾸리아 신용조합 윌레회 사도 회장단 선거 관리 위원회 성우회 상관 사도회 자모회	47,414원	
제 2 지구	대윤명중합	축본당 신부님 영명 청년회 바다의 별 꾸리아 윌레회 꾸리아 회합 사도회, 임시총회	6,390원					25,935원
			32,800원					10,100원
			21,041원			16,922원		
			13,265원			16,685원		
			17,830원	제 5 지구	남원주장진	중·고등학생 하계 캠핑	11,955원	
제 3 지구	고금여 산산산	성모 뫼소 승천 체육대회 신우회 윌레회 학생회	4,375원					
			9,660원					
			3,830원					